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Legends never die

생지옥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빌었다.
제발, 제발, 제발 살려만 달라고.
십삼 년은 너무 짧은 생이었으니, 아직 못 해 본 것이 너무 많으니, 대학은 꼭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으니, 곧 방학이라며 친구들과 놀 생각에 들떠 있었으니, 피아노 체르니 30번까지는 꼭 끝내고 싶어 했으니, 곧 태권도 시범단 옷이 나온다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음 주는 바닷가, 그 다음 주는 가족 여름휴가 계획이 잡혀 있으니 제발 시간을 더 달라고 신에게 간구했다. 차라리 나를 벌하라고. 제발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내가 대신 달게 받겠다고 엎드려 빌고 또 빌었으나 나의 열세 살 큰 아들은 신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한 채 나를 떠났다.

늘 처음이라는 수식을 달고 살던 아이였다. 우리들의 첫 아이이자 첫 아들, 첫 손주였으며, 첫 돌잔치, 첫 입학, 첫 졸업, 무엇을 하든 늘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처음을 안겨 주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애통하게도 죽음마저 처음이라는 수식어로 장식해 버렸다. 나는 그 아이가 나보다 키가 클 날만을 기다렸다. 든든한 큰아들 팔짱 끼고 동네 길을 걸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울까 상상하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겨우 한 뼘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만 넘기면 나보다 커질 것만 같았는데..... 하늘은 내가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일요일 오전 아빠와 자전거 타고 한강도 가고 점심엔 동생들과 게임도 실컷 하고 저녁은 아빠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다며 평소보다 밥도 빨리 먹고 디저트로 참외와 복숭아까지 챙겨 먹고 평소처럼 굿 나이트 인사를 하고 잠들었는데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내 방으로 걸어오던 아들은 그대로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다.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평생 남의 집 아이들 다 걸린다는 수족구, 중이염, 장염 한번 안 걸리고 어쩌다 감기나 걸리는 게 다인 건강한 아이였고 아이의 건강함은 나의 자부심이었다. 그랬던 아들은 축 늘어진 몸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4시간이 넘는 응급 수술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사투를 버렸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다.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상복을 입고 빈소를 차리고 장례미사를 하고 있자니 내 운명이 기구하고 순식간에 생을 마감한 이제 겨우 열세 살 아들이 가여워 가슴이 찢어지고 뭉그러졌다. 집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고, 갈비탕을 먹으면 아이가 좋아하던 당면을 못 넘기겠고, 부엌에 들어가면 아이가 매일 아침 버려주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마음이 무너진다.

이제 고작 열세 살,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엄마가 쓰다듬고 입을 맞추면 싫어할까 싶어서 머리 한번, 어깨 한번 토닥이는 것도 망설이고 아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 없이 만지고 입이라도 맞춰줄 걸..... 남은 평생 이 아이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듣고 싶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다.

아이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보니 "Legends never die" 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마치 미리 준비해놓은 것처럼 절묘하게 잘 맞는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 아들 유골함에 새겨주었다. 유골함 대신 방 머리맡에 새겨주었다면 훨씬 더 근사 했겠지만 왠지 아이가 하늘에서 보며 좋아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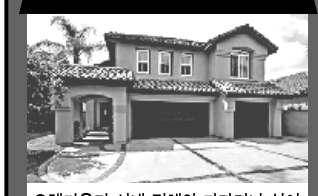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남편과 약속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의 레전드를 지켜주자고. 우리 아이의 전설이 남은 가족들을 통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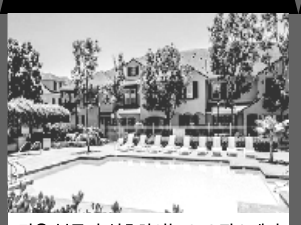
Legends never die.
They become a part of you.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독점*오렌지힐

오렌카운티 시내 전체와 카타리나 섬이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qft
단지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집전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
보시면 한눈에 반하실
turn key 매물입니다.
$1,198,000

*독점*어바인 타운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노스팍스퀘어
모델 하우스 같은 타운홈
방3 화3
렌탈 투자용으로 너무 좋은
수영장 뷰가 있는
백맨 하이스쿨 도보거리
$805,000

플러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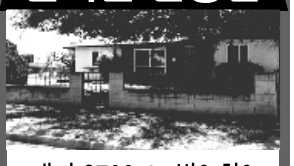
풀러튼 새집 분양
방 3개 화 3개 1578 sf.
$500,000부터

뉴포트비치 상가 단독 건물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번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매물입니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2,250,000

라하브라 타운홈

방 3개 화 3개
1300 SF
$499,000

플러튼 단층집

대지 8700sf. 방3 화3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69,000

레이크포레스트 2~4bed 새 타운홈/콘도를 소개합니다
지금 ! 분양합니다. 첫번째 Phase로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No Melloroos!!
* 2bed&2.5bath 1,321sf. $564,990 * 3bed&3.5bath 1,736sf. $649,990
* 3bed&3.5bath 1,670sf. $669,990 * 3bed&3.5bath 1,812sf. $719,990
* 4bed&3.5bath 2,001f. $749,990

※ 새집 분양! 얼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